



표본회 소식

<https://biology.jnu.ac.kr/biology/17436/subview.do>

제 2호

발행일 : 2022년 8월 31일

편집인 : 김수연(표본연구회 회장)

발행인 : 김응삼(생물학과장)



▶ 숲 해설을 마치고 찍은 조류 (bird) 파트의 단체사진.
숲 해설을 통해 비자나무, 굴거리 나무 등 내장산에 서식하는 다양한 식물에 대해 배웠으며 사운드 박스를 이용하여 내장산에 서식하는 다양한 조류의 소리도 들어보았다.

당일치기라도 어쨌든 갔다 춘계채집

2년간 사라졌던 춘계 채집이 부활했다. 춘계 채집은 표본회에서 가지는 의미가 크다. 표본 연구회의 공식적인 첫 활동일뿐만 아니라 동아리원들은 춘계 채집을 통해 생물을 관찰하고, 동정하며 자신이 속한 파트의 생물종에 대해서 배울 수 있으며 함께 활동 하고 밥을 먹고 하루를 같이 보내면서 파트원들끼리도, 동아리원끼리도 돈독해질 기회가 될 수 있다.

5월 13일 진행된 춘계 채집은 10시에 전남대학교 자연과학대학 1호관의 사이언스 홀에서 집합하여 오전에는 사이언스 홀에서 파트별 사전 교육과 표본연구회의 연간 계획 발표를 진행하였다. 점심식사 이후 전남대학교 장성 수련원으로 이동하여 내장산 국립공원의 [맑은 계곡 남창골에서 듣는 자연 이야기] 숲 해설을 진행하였다. 숲 해설 이후 조류(bird)파트와 양서 파충류 파트 각각은 선배님들의 안내를 따라 약 1시간 동안 탐조 및 관찰 활동을 진행하였다. 조류는 동박새와 쇠딱따구리를 포함하여 총 4목 12과 19종을 관찰하였으며 양서 파충류는 무당개구리를 포함하여 총 2목 3과 3종을 관찰하였다. 날씨가 흐리고 활동도가 낮은 시간대에 채집이 진행되어 다양한 종을 관찰하기는 어려웠으나 평소에 보기 힘든 종들을 여럿 볼 수 있었다. 채집 이후 전남대학교로 돌아가 함께 저녁을 먹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춘계 채집은 여러 상황이 겹치며 당일치기로 진행되었고 조류(algae) 파트와 곤충 파트는 채집 또한 불가능하였다는 것이 아쉬움이 남는다. 그럼에도 표본회 임원진들이 열심히 기획한 만큼 동아리원들이 이번 채집을 통해 조금이라도 생물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생태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길 바란다.

국립 호남권 생물 자원관과 자연사 박물관

지난 6월 24일 국립 호남권 생물 자원관과 목포 자연사 박물관 견학이 진행되었다. 국립 호남권 생물 자원관은 삼과 연안 지역의 생물 자원 연구기관으로, 자원관 소개와 전시 프로그램 해설을 들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이전에는 형태 위주로 생물종의 분류가 진행되었다면 요즘엔 DNA를 이용한 분자 분류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표본을 보관하는 수장고를 방문하여 표본 보관에서 중요한 것, 기준표본 등 표본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다. 또한 상설전시관과 기획전시관의 해설을 들으며 한반도와 호남의 섬 생물 다양성과 자산어보 속의 생물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다. 특히 '미운 오리 새끼', '아기돼지 삼 형제' 등 유명한 동화를 표본을 사용하여 재현한 부분은 아이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국립 호남권 생물자원관에서의 활동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점심식사 이후 목포 자연사 박물관으로 이동하였다. 자연사박물관은 자연의 역사가 기록된 박물관으로, 도슨트 해설을 통해 지질관부터 지역생태관까지 생물들의 발현과 역사뿐만 아니라 목포에 서식하는 생물종 또한 알 수 있었다.

이런 기관의 견학은 관련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하며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하나의 길이 되어 줄 수 있는 만큼 이런 활동이 자주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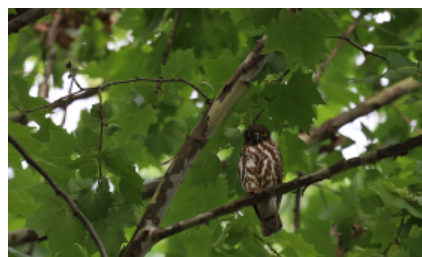


하계 채집

조류 (Bi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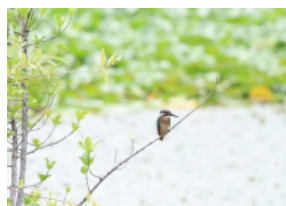
7월 26일 조류(bird)를 시작으로 표본연구회의 여름 채집이 시작되었다. 조류 파트의 첫 활동은 가박제로, 사전교육 이후 가박제 수업이 진행되었다. 이번에 가박제를 진행한 종은 까치, 되지빠귀, 붉은 머리 오목눈이였으며 총 까치 2개체, 되지빠귀 1개체, 붉은 머리 오목눈이 1개체로 2인 1조 혹은 1인 1조로 진행되었다. 박제된 표본은 현재 자연과학대학 1호관 2층 표본전시실에 전시되어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닌 만큼 많은 학생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길 바라며 다음 박제 수업 때는 진박제를 목표로 하여 생전의 모습을 복원하고 전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플라타너스 나무 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솔부엉이.
솔부엉이는 머리에 귀깃이 없는 부엉이이며 다른 맹금류에 비해 크기가 작은 편이다. 주변의 나무구멍에서 솔부엉이 유조 또한 발견되었다.

7월 27일 조류(bird)파트에서 교내탐조를 진행하였다. 3시에 선배님의 지도하에 사전교육 후 자연대 뒷산부터 용지 그리고 농대까지 이동하며 탐조를 하였다. 여름인데다가 활동성이 떨어지는 시간대에 진행하여 많은 조류를 관찰하지는 못하였지만, 원앙, 물총새, 솔부엉이, 파랑새 등 쉽게 보지 못하는 조류를 여럿 관찰할 수 있었다.

▶ 전남대학교 용지에서 발견된 물총새
물총새는 우리나라의 여름 철새이며 용지에서 종종 발견되니 날씨가 좋은 여름날 쌍안경을 들고 용지에 가면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양서 파충류



지난 8월 11일 양서-파충류 파트에서 하계 채집을 위해 자연과학대학 1호관에 모였다. 채집의 경우 교내에서 진행되었으며 연구실에서 전날 채집한 양서류를 관찰하고 현장으로 이동하여 개체들이 잡힌 장소를 관찰하였다. 이날 교내에서 채집한 종은 청개구리, 참개구리, 무당개구리의 성체와 유체를 관찰할 수 있었다. 현장에서의 관찰을 마치고 강의실에서 우리나라의 양서 파충류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외래종을 직접 만져볼 수도 있었다. 채집에 참여한 파트원은 다음과 같은 소감문을 남겼다.

"평소에 채집이라 하면, 숲속이나 물속에 들어가야지만 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 교내 채집을 계기로 나의 오만했던 생각을 재고했다. 주변에 사람이 많은 곳이라 해서 동물이 없거나 살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그들만의 삶을 살고 있던 것이다. 물론, 하수구 근처나 인공적으로 조성된 논밭에서 서식하는 모습은 자연 본연의 방식이 아니라는 점에서 아쉽기는 하지만, 생명은 적응하며 산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것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삶의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중략)"

▶ 양서파충류 파트의 활동 사진.

오른쪽 하단의 개구리는 무당개구리로, 등면의 피부에는 작은 돌기가 있고 배면에는 붉은색 혹은 누런빛을 띠는 붉은색 바탕색에 검은색의 불규칙한 무늬가 존재한다.



조류 (algae)



▶ 용지의 부유조류 채집
채수통을 이용하여 용지의 물을 뜨는 모습이다.
▼ 파트원들이 키우는 마리모이다. 파트원들이 각자 집에서 마리모를 키우고 있다.



8월 초에 시작한 조류(algae) 파트의 첫 활동은 마리모 키우기이다. 마리모는 공 모양의 집합체를 만드는 담수성 녹조류로, 키트를 구매하여 파트원들과 키우기 시작했다. 일주일에 한 번 물을 갈아주고 적정 온도를 맞춰주며 마리모가 잘 자라도록 관리를 꾸준히 해주고 있다.

8월 27일 조류(algae)의 교내 채집으로 올해 하계 채집이 마무리되었다. 학교 내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고, 계절에 따라 많은 변화상을 보여주는 용지에서 조류의 계절별 변화상을 확인하기 위해 부유조류의 조사를 진행하였다. 용지의 부유조류를 채집하기 위하여 1L 채수통을 이용하여 부유 조류를 채집하였다. 용지의 수심이 깊은 탓에 부착조류 채집은 할 수 없었지만, 용지는 학교 내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고, 계절에 따라 많은 변화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용지의 부유조류를 채집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채집한 조류를 조류학 실험실의 도움을 받아 산 세척 및 고정 후 현미경을 이용하여 채집한 조류의 종 동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하계 채집

곤충



지난 8월 6일과 8월 27일, 곤충 파트는 김종선 교수님의 농장과 교내로 하계 채집을 나섰다. 학과 선배님의 지도를 받아 곤충을 채집하고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본 후, 채집 장소에서 보이는 다양한 곤충들을 관찰하고, 포충망을 이용하여 직접 잡아보았다. 이틀 동안 진행된 채집활동을 통해 채집한 곤충은 총 사마귀 1개체, 산제비나비 1개체, 암끝검은표범나비 2개체, 뽕장잠자리 6개체, 밀잠자리 4개체, 버메뚜기 5개체, 말매미 14개체 등이며 익일에 자신이 직접 채집했던 곤충을 사진을 통해 동정해 보고, 표본을 제작하였다. 제작한 표본은 자연과학대학 1호관 2층 표본전시실에서 건조작업을 거치고 있다. 선배님들의 지도 덕분에 어렵고 복잡한 채집과 표본제작의 일련의 활동을 잘 수행할 수 있었으며 많은 파트원들이 활동해 성실히 참여해 준 덕분에 하계 채집을 계획대로 잘 마칠 수 있었다.



다음엔 무슨 활동 ?

추계 채집 & MT : 9월 24일 - 25일 곡성 청소년 야영장에서 채집과 MT

전시회 : [색과 소리]를 주제로 11월 24, 25일에 컨벤션홀에서 전시회 !

조류 (bird)

박제 수업 : 본박제를 통해 생전 모습을 복원하고 전시를 해보자

조류 유리창 충돌 조사 : 건물 유리창과 투명 방음벽에 충돌하여 희생된 조류의 정보를 모으는 조사에 참여해보자

새의 song과 call의 차이와 다양한 새의 소리를 조사해보자

양서 파충류

골격 염색 : 참개구리 골격염색을 통해 골격 구조와 형태, 내부기관을 알아보자

카멜레온 피부의 색이 바뀌는 이유인 '광간섭'과 그 원리에 대해 알아보자

조류 (algae)

미역과 다시마 등 해조류를 가지고 건조 표본을 만들어 보자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 광합성 색소를 분리하고 각 광합성 색소에서의 형광 방출을 관찰해보자

곤충

발음기관과 발음 원리의 차이를 이용해서 진동음과 마찰음의 차이를 알아보자

곤충이 포식자에게 대응하는 전략인 의태와 경고색에 대해 알아보자

의성어로 표현한 매미의 울음소리와 매미 울음소리 파형을 비교해보자